

##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는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인 '성북동천'이 발행하는 마을 잡지입니다.  
이 잡지는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간행되었습니다.

## 성북동 마을 잡지 6호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 성북동의 숨은 보물찾기

성북동에게 / 최성수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으라

자본과 개발의 밀물 속에서도 그대  
거대한 도시 서울에 홀로 서있으라

마을 밖에서는 재빠르게 변화의 시간이 흐르고,  
탐욕이 집을 삼키고 마을을 삼키고 마침내는  
인간마저 송두리째 먹어치우는 시대

작은 골짜기 손바닥만한 동네에  
멈춘 듯 그대 서 있으라  
비탈과 골목과 이웃이 어울려 빚어내는  
낯은 것의 아름다움을 그대, 간직한 채 남아있으라

하나쯤은 시간을 거슬러 존재하는 것이 있음을  
하나쯤은 세상과 멀찌감치 떨어져 살아가는 것도 있음을

그대를 통해 느끼리니  
오래 그대로 견디며 서 있으라,

성북동이여

\* 표지 글씨는 성북구 평생 학습관 수련생인 박종순·전현숙님께서 쓰신 글을  
집자하였습니다.

## 차례

- 1p 성북동의 숨은 보물 찾기
- 5p 시인 김광섭과 『성북동 비둘기』  
박미산
- 12p 성북동과 시인 김광섭, 그리고 화가 김환기  
편집부
- 13p 저녁에  
김광섭
- 14p 작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김환기
- 16p 화가 김환기와 작품 해설  
장유정
- 19p 사적지 선잠단지 해설  
우리 동네 문화재 이야기 1 / 김소원
- 27p 선잠단지 위에 서서  
우리 동네 문화재 이야기 2 / 박진하
- 33p 여행에서 만나 삶이 된 차 이야기가 흐르는  
티차이차(TEACHACHA)  
우리 가게를 소개합니다 / 이창환
- 40p 성북동의 역사와 문화와 사람들을  
품고 사는 지역 활동가, 김황용님  
성북동의 이 사람 / 김현주, 오예주
- 44p 김혜경 목욕탕 / 김소희 작업 이야기  
갤러리 17717 한장 스케치
- 48p ‘성북동, 시인과 만나다 - 네 번째’가 열린  
염상섭 옛집을 다녀와서  
리뷰 / 서정혜
- 51p 아름다운 성북동의 가을 풍경  
사진. 김선문
- 68p 참여마당
- 73p 선잠마을 가을축제에 대한 보다 짧은 보고서  
성북동 마을 축제 / 노정순
- 76p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십니다
- 77p 편집 후기



## 시인 김광섭과 『성북동 비둘기』

박미산

시인 김광섭(金光燮, 1905~1977)은 1935년 『시원』을 통해 시 「고독」을 발표한 이후 40년이 넘는 세월을 부단히 시작활동에 전념하여 『동경』(1938), 『마음』(1949), 『해바라기』(1957), 『성북동 비둘기』(1969), 『반응』(1971) 등의 시집과 『김광섭 시 전집』(1974), 그리고 『김광섭 시 선집- 겨울날』(1975) 등 전집과 선집을 포함하여 모두 7권의 시집을 발간했다.

그는 1905년 함경북도 경성 어대진이라는 바닷가 근처에서 태어났다. 중등학교와 1933년 와세다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귀국한 그는 모교인 중등학교의 교사로 부임하는 한편 ‘극예술연구회’에 가입한다. 그는 모교인 중등학교에서 10년간 교단에 섰는데, 1941년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아일랜드 시를 강의하면서 반일과 민족사상을 고취했다는 혐의로 일경에 체포되어 3년 8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해방을 맞이한다.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한국문단은 좌우를 막론하고 온통 친일의 흔적으로 얼룩져있었다. 김광섭은 해방 후 우익 문학단체인 ‘중앙문화협회’ 창립을 주도하고, 이 단체의 후신인 ‘전조선문필가협회’의 총무부장으로 활약했다. 또한 미 군정청 공보국장을 지내다가 정부수립 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 공보비서관을 지낸다.

그는 1951년 관직을 떠나 경희대학 교수로 임용되면서 1955년 1월

에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중앙위원과 ‘한국자유문학자 협회’ 위원장 역임했다. 김광섭은 1956년 조연현의 『현대문학』에 맞설 수 있는 기관지 『자유문학』을 창간한다.

그는 1961년에 서울 성북구 성북동 168번지 34호에 집을 지어 입주하는데 이곳이 그의 대표작인 「성북동 비둘기」의 산실이다.

『자유문학』이 1964년에 재정난을 겪다가 마침내 휴간에 들어가며 김광섭은 그 여파로 고혈압 증세를 보여 1965년 4월, 60세의 나이에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지던 경희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야구경기를 관전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진다. 그는 투병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정들었던 성북동 집을 팔고 성북구 미아동으로 이사한다. 그는 1969년 그때의 추억을 더듬어 네 번째 시집인 『성북동 비둘기』를 간행한다.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쿡알 하나 짹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루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溫氣)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聖者)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삶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놓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전문, 『성북동 비둘기』(1969, 범우사)

그는 「성북동 비둘기」를 쓰게 된 모티브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뇌출혈로 메디칼 센터에 입원하여 오랜 혼수상태를 겪으면서 사경을 헤맸어요. 그 후 성북동 나의 집 마당에 자리를 펴고 앉았는데, 따스한 훈풍이 불고 꽃이 피어 있었어요. 뇌일혈이란 말을 듣고 내 시적 생명은 끝났다는 절망감을 안고 있었지요. 그때, 하늘을 바라보다가 아침마다 하늘을 휘익 돌아 나는 비둘기 떼를 보게 되었어요. 「성북동 비둘기」의 착상은 거기에서였지요. 돌 깨는 소리가 채석장에서 울리면 놀라서 날아오르는 새들, 그러나 저것들이 우리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 줄 것인가. 돌 깨는 산에서는 다이내마이트가 터지고 집들은 모두 시멘트로 지어서 마음 놓고 내릴 장소도 없는 저것들



이란 데 생각이 머물렀어요.”(김광섭, 『김광섭시선집』, 일지사, 1974)

이 시는 서울의 성북구 성북동이라는 구체적 ‘장소’가 폭력적으로 개발되어 적대적이고 비정한 장소로 변화되는 장소 상실을 노래한 작품이다. 1960년대를 기점으로 진행된 급속한 도시화는 도시인구의 과밀화, 지방 중소도시의 상대적 침체, 농촌 노동인구의 절대 부족, 도시 주변의 항구적인 빈곤지대 형성, 도시의 교통·위생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성북동의 자연경관이 파괴된 것도 1960년대 이후 이루어진 산업사회로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도시개발과 연관된다.

도시개발은 사람들로부터 거주할 장소를 빼앗고,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의 생업을 박탈하고, 자아정체성을 붕괴하고, 그들의 마음에서 사랑과 평화마저 빼앗아 가버린 비인간적이고 타자 지향적인 개발이라는 것을 ‘비둘기’라는 상징을 통해서 시인은 노래했다. 「성북동 비둘기」는 ‘성북동’이란 구체적 장소를 통해 폭력적 도시화 과정에서 경험하는 원주민의 뿌리 뽑힌 느낌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광섭은 1945년부터 1960년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단을 만들고 이끌어간 가장 중요한 인물 중의 한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우리가 김광섭을 한국 문단의 건설자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시인이라는 측면에서 기억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사람들이 김광섭을 「성북동비둘기」의 시인으로 기억하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시인으로 시작해서 시인으로 생애를 마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 대부분 시인들이 활동 초기에 가장 뛰어난 작품을 남기는 우리 문단의 일반적 관례와는 달리 만년에 인생에 대한 달관과 원숙미를 과시하며 훨씬 훌륭한 작품을 썼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독과 고요를 동경하는 시인으로 출발한 그가 뇌출혈로 쓰러져 문단 정치 일선을 떠나 실존의 세계로 돌아온 것은 역설적이게도 축복이 되었다. ㉮

\* 참고문헌 : 「김광섭, 시인이란 기억 뒤의 문단건설자」, 홍정선 「김광섭 후기 시에 나타난 장소 이미지와 생태적 상상력」, 송명희

-  
박미산은 2006년 ‘유심’, 2008년 ‘세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시집 ‘태양의 혀’ (서정시학, 2014)을 냈다. 성북동에 살고 있으며 지역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다. 또 서울디지털대학 초빙교수로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다.

## 성북동과 시인 김광섭, 그리고 화가 김환기

### 편집부

시인 김광섭은 1961년부터 불과 5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성북동에서 살았지만 그가 남긴 족적은 그 어느 것보다 깊다. 아마도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성북동 비둘기’를 쓴 시점이 이 시기이었기에 그럴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성북동은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의 시는 내면의 세계나 이상향을 관념적인 표현으로 노래하였으나 성북동에서의 삶을 기점으로 변화되었다.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표현방식으로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뇌출혈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어렵기만 한 그의 시가 우리 곁으로 내려와 보다 편안하게 이해될 수 있게 되었다.

얼마 전인가 작곡가 모리스 라벨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그의 작품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볼레르’는 치매 증상이 보이는 시점에서 만들어 졌다고 하는 것이다. 주제가 169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그런 증거라 한다. 일반적으로 치매가 심화되면 한 말을 또 하고 또 한다는 것이다. 것처럼 라벨은 한 주제를 끊임없이 반복하였다. 그러나 조금씩 음이 고조시키거나 변형시키면서 같은 느낌이 없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클래식을 보다 쉽고 편안하게 접근하게 만들었다. 달콤한 매혹적인 ‘볼레르’는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를 닮아있다.

또 다른 그의 시는 위대한 미술작품을 낳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저녁에’라는 작품이다. 그의 절친한 친구, 김환기 화가가 김광섭 시인의 이 작품을 보고 그림으로 표현했다.

뇌출혈로 인해 죽음을 예감하며 쓴 시가 이것이다. 그는 ‘밤을 깊을 수록 /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고 했다. 사라질 그의 운명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 시를 본 화가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작품으로 응답하고 있다.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라는 작품을 보면 소녀의 운명을 연장하기 위해 노화가가 벽에 영원히 지지 않을 잎새를 그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처럼 화가 김환기는 밝음 속에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무수한 별을 캔버스에 그린다.

그들은 성북동에 나누었던 우정을 위대한 작품으로 승화시켜 우리 곁에 남아 있게 했다. 이번 마을 잡지에서는 그들의 삶과 예술 세계를 정리해 보았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시인 김광섭이 살았던 집 앞에 안내판 하나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가 살았던 집터를 찾았으나 없었다.

또 성북동 168-34(새 주소 : 성북로 10길 30)에 들어선 원익 스카이 빌에 사시는 주민들은 그들이 어느 시인이 살던 그 터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

더불어 주위 어르신께 물어 ‘성북동 비둘기’에 나오는 채석장이 벼랑을 깎은 흔적인 역력한 주차장이 되고 한진 아파트가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 저녁에

김 광 섭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을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

작가 김환기, 크기 236\*172cm, 제 1회 한국미술대상전 대상 수상

## 화가 김환기와 작품 해설

### 장유정

2015년 10월 성북천에는 김광섭 시인의 시가 나부꼈다. <성북동 비둘기>로 우리에게 친숙한 김광섭 시인 탄생 110주년을 기념하여, 시민들이 그의 시를 한글 서예나 캘리그래피로 쓴 것을 깃발 현수막으로 만들어 설치한 것이다. 수많은 시들 중 유난히 <저녁>이라는 시가 눈에 들어왔다.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 (중략) 이렇게 정다운 / 너 하나 나 하나는 / 어디서 무엇이 되어 / 다시 만나랴.

이 시를 읽다 보면 자연스레 수화 김환기(1913- 1974)의 그림 한 폭이 생각난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1970)가 바로 그 작품인데, 김광섭 시인의 시 <저녁>(1969)의 마지막 두 구절을 가져와 제목으로 삼았다.

김환기가 뉴욕으로 건너가 예술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 한국일보에서 만든 제 1회 한국미술대상에 응모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마침, 김광섭이 오랜만에 시를 발표했다며 보내온 잡지에 수록된 <저녁에>를 읽고 이 작품을 그리게 된다. 당시 김환기는 한국에서



쌓아올린 작가로서의 명성과 미술계의 인정을 내려놓고 뉴욕으로 가, 외로움을 견디며 날마다 열 시간 이상을 그림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에게 조국과 벗들은 그리움에 사무치는 대상이었다. 뉴욕에 간 지 두 달도 안 되었을 무렵의 그의 일기를 보면 ‘못 견디게 그리워지는 시간-조국이라는 게, 고향이라는 게, 내 예술과 우리 서울과는 분리할 수 없을 것 같애...’(1963년 12월 12일)라고 쓰고 있을 정도다.

어쨌든 김환기는 이 작품으로 한국미술대상전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고, 수상 소감에서 “그리운 친구들을 생각하며 점 하나하나를 그렸다”고 밝혔다. 성북동 노시산방을 헐값에 넘겨 준 김용준, 결혼식 주례를 서 준 고희동, 부산 피난 시절 국립박물관에서 현대미술 전시회를 열어 그림을 팔아 준 최순우, 성북동 시절부터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김광섭 등등. 그리운 얼굴들이 푸른 점이 되어 대형 화폭에 하나하나 찍혀 갔을 것이다.

“내가 그리는 선, 하늘 끝에 더 갔을까. 내가 찍은 점, 저 총총히 빛나는 별만큼이나 했을까. 눈을 감으면 환희 보이는 무지개보다 더 환해지는 우리 강산...(1970년 1월 27일자 김환기 일기 중)”

이 작품이 출품되었을 때 한국 화단은 큰 충격을 받았다. 한국의 정서,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백자 달 항아리, 매화, 학, 산, 강 등 전통 문화나 자연을 소재로 반구상의 그림을 그려왔던 김환기의 화풍이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뉴욕에 간 뒤 단순한 원색의 색면을 거치더니, 점차적으로 점들을 반복적으로 찍어 화면 전체를 덮는 전면 점화로 변해갔던 것이다. 물론 이 점들은 이전 그림들에서 보이던 산의 윤곽이나, 바다에 떠 있는 섬 등을 더 추상화시킨 것으로, 자연에 가까이 가려는 그의 근본적인 마음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나중에는 자연을 우주로까지 확장하여 표현하기도 했다. 결국, 김환기는 뉴욕에서의 피나는 노력 끝에 자신의 새로운 예술 세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지만,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평소 ‘이런데서 누워서 쉬면 좋겠다’며 즐겨 갔던 뉴욕 발할라 마을 켄시코 묘지에 영원히 잠들었다. 김환기와 가까이 교유했던 최순우의 표현대로 ‘한국의 멋을 폭넓게 창조해내고 멋으로 세상을 살아간 참으로 귀한 예술가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예술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 성북동의 예술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때로 김광섭의 시를 보면서 말이다. 

-  
장유정은 성북 예술창작터 큐레이터로 성북주민을 위한 여러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다.

우리 동네 문화재 이야기 1

## 사적지 선잠단지 해설

김소원(여성문화연구회 회장)

### 뽕나무와 누에

뿌리부터 잎, 열매까지 버릴 게 없는 나무가 뽕나무이다. 먹을거리와 입을거리를 모두 주었으니 신이 내린 나무라는 별명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합성섬유가 주류를 이루는 요즘도 ‘비단’에 대한 환상을 저버리지는 못한다. 손의 촉감만으로도 그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을 어디다 건줄 수 있을까. 하물며 천연섬유로만 옷을 해 입었던 전근대 사회에서 비단으로 만든 옷은 단연 최고의 옷이었다. 이러한 비단은 누에고치에서 실을 얻고, 누에는 뽕잎을 먹고 자라 고치를 짓는다.

누에의 머리는 말처럼 생겼는데, 여기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다.

옛날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 오랫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집에는 딸과 말 한 마리만 있을 뿐이었다. 딸은 아버지가 그리워 말에게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오면 네게 시집갈 텐데” 하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은 말은 몇날며칠을 걸려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는 집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딸은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했는데 말이 사람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를 모시고 온 거라고 했다. 그때부터 말은 풍성한 음식도 먹지 않고 딸을 보면 흥분

해서 날뛰었다. 할 수 없이 딸은 아버지에게 사실을 말했다. 아버지는 딸을 사위로 삼을 수 없기에 딸을 화살로 죽이고, 가죽을 벗겨 뜰에 널어두었다. 딸이 그 말가죽을 걷어챘다. 그러자 말가죽이 갑자기 날아올라 소녀를 뒤집어씌우고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렸다. 아버지가 딸을 찾아 헤맬 때 큰 나무의 나뭇잎 사이에서 말가죽으로 둘러싸인 딸을 찾아냈다. 하지만 딸을 이미 꿈틀꿈틀 움직이는 벌레 모양의 생물로 변했다. 그 벌레는 말 모양의 머리를 천천히 흔들면서 실을 토해냈다. 실을 토해내는 이 생물을 사람들이 누에라고 불렀고, 그 나무를 뽕나무라고 불렀다.

이 이야기는 뽕나무와 누에 탄생의 신화라고 보아도 될 것 같다. 실제로 누에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뽕잎을 먹고 키우는 동안 습도와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야 한다. 그래서 누에를 키우는 일은 짧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쉬운 노동은 아니었다.

### 선잠단과 선잠제례

서울시 성북구 성북초등학교 담장 건너편에는 뽕나무를 품고 있는 ‘선잠단지’가 있다. 붉은 홍살문이 처져 있는 것으로 보아 황실과 관련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국조오례의》‘길례’에 ‘선잠단은 선잠인 서릉 씨를 제향한다’고 되어 있다. 선잠이란 먼저 양잠을 했다는 뜻이니, 선잠단은 잠신에게 제례를 지내던 곳이다.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했던 조선은 ‘국가오례의’에서 정한 ‘길례’에 따라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로 구분해 23가지 국가제례를 지냈다. 종묘와 사직에서 지낸 대사 다음이 중사인데 선잠제례는 중사로서 뽕잎이 나기 시작하는 음력 3월에 길인인 뽕날에 제향을 올렸다.

인류 최초로 양잠을 하던 서릉 씨는 누구인가? 그는 중국 ‘삼황오

제’ 시대 중앙의 상제였던 황제(黃帝)의 부인이다. 누조가 어느 날 차를 마시다 실수로 누에고치를 뜨거운 찻잔에 빠트렸다. 그런데 고치에서 가느다란 실이 계속 풀어져 나왔다. 그때부터 누조는 양잠의 이치를 알고 양잠을 시작했고, 백성들도 뒤따라 하였으니 선잠제는 서릉 씨에게 양잠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사》에 선잠단의 규모, 제향일, 제사의식, 폐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 때부터 선잠제례를 정례화한 것으로 보인다. 선잠단의 위치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선잠단이 동소문 밖 사한이(지금의 성북동)에 있다고 되어 있고, 《성종실록》에는 선잠단은 북교(北郊)에 있다고 되어 있다. 북교라고 하면 서울 도성의 북문 밖 근처를 말하지만, 창덕궁 북쪽에 선잠단이 있어 북교로 인식한 듯하다. 고종 대 편찬한 《증보문헌비고》에는 선잠단이 동교(東郊)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들로 보았을 때 지금 선잠단지가 있던 곳이 선잠단이 있던 곳으로 보인다. 선잠단은 단의 크기만 가로 세로 7미터였으니 전체의 크기는 옆의 성북초등학교를 넘어서는 크기였을 것이다.

선잠제례를 지낸 날은 《국조오례의》에 따르면 뽕잎이 나는 3월(음력)에 길일인 ‘뽕날’에 하였다. 하지만 뽕잎이 나지 않으면 날짜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선잠제례는 중사였기 때문에 왕이 직접 오지는 않고 관원이 대신 지내는 ‘섭사’로 진행되었다. 선잠제례에서 처음으로 술을 따르는 초헌관은 정1품 관원이,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아헌관은 정3품 당상관이,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종헌관은 정3품 당하관이 담당하였다.



## 여성의 부덕, 길쌈

태조는 ‘농업과 양잠은 의식(衣食)의 근원이고 백성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태조실록)이라고 말했다. 전근대사회에서 경제의 양축은 농업과 양잠이었다. 농업으로 먹을거리를 마련하고, 양잠으로 입을거리를 마련했다. 조선시대 국가의 중요 산업은 ‘권농상(勸農桑)’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이 말을 풀면 농업과 뽕나무를 키우는 일을 권장한다는 뜻이다. 농사와 양잠을 장려하던 일은 《삼국사기》에도 나오는데 고대사회부터 중요한 국가사업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베 가운데 왜 양잠을 장려했을까? 전통사회의 직물은 무명, 삼베, 모시, 비단이 있었다. 무명을 얻기 위해서는 목화를, 삼베를 얻기 위해서는 마를, 모시를 얻기 위해서는 모시 풀을 경작해야 한다. 그런데 뽕나무는 따로 경작하지 않아도 산과 들에서 자라고 있었다. 따로 땅이 필요 없고, 누에를 키워 비단을 얻는 데까지 3월부터 5월까지 약 40~50일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여 단기간에 수확할 수 있는 일이었다. 뽕잎을 따고, 뽕잎을 누에에게 먹여 키우는 일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 다른 의료작물과 달리 여성의 노동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남경여직(男耕女織)은 남자는 농사짓고, 여자는 베를 짠다는 말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견우직녀’ 이야기에서도 남경여직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견우직녀’ ‘연오랑 세오녀’ 이야기, 베를 잘 짜서 왕비가 되었다는 민담에서 고대국가가 형성되던 시기에 여성의 길쌈 노동과 그 생산물인 직물은 신성성까지 부여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뒤 길쌈 노동의 신성성은 사라지고, 여성 노동을 상징하게 된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유교적 가부장제가 정착되면서 여성의 역할은 가정으로 축소되었다. 그 시기 여성의 덕목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길쌈과 바느질은 빠지지 않았다.

조선전기 여성 교훈서인 《여사서(女四書)》에는 ‘농부는 밭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하고 선비는 배우는 일에 열심이어야 하며 여자는 베 짜는 일에 힘써야 한다. 농부가 게으르면 오곡을 수확할 수 없고 선비가 게으르면 학문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여자가 게으르면 베틀이 놀게 되어 가정살림이 궁핍하게 된다’ 했다. 부인은 베 짜고 옷 짓는 일을 아름답게 여기라고 하여 여성이 길쌈에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길쌈은 한 가정의 자급자족을 위해서도 필요했지만, 가난한 가정에서는 길쌈의 생산물을 팔아 가정경제를 이끌어 갔다. 군포를 내기 위해 길쌈을 해야 했다. 선잠단은 양잠만이 아니라 여성의 노동이었던 길쌈과 바느질을 대표한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 왕은 친경례를 왕비는 친잠례를

선잠단을 이야기할 때 나란히 짝을 이루는 곳이 선농단이다. 선농제는 농경신 염제 신농씨에게 제를 올린다. 신농씨가 남신인 반면, 서릉씨는 여신이다.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선농단에서 제사 지내고, 왕은 친히 농사짓는 ‘친경’을 했다면, 양잠을 위해서 선잠단에서 제사 지내고, 왕비는 친히 양잠하는 ‘친잠’을 했다.

왕비의 친잠례는 왕비가 중심이 되어 내·외명부의 여성들을 거느리고 뽕잎을 따고 누에에게 뽕잎을 먹이는 모범을 보이는 행사이다. 이는 일반 부녀들에게 양잠을 권장하는 의식으로 친경례와 더불어 중요한 국가의례였다. 친잠례는 왕실의 권위와 위상을 드러내는 방법이 되기도 했다. 친잠례를 할 때에는 잠모(蠶母)라는 양잠 기술자가 동참하였다. 잠모는 태종 16년에 조종잠실과 미원잠실에 배치하였다는 기록이 처음인데 관비에서 선출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양잠을 장려하고 양잠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모범 양잠소라 할 수 있는 ‘잠실’을 두었다. 잠실은 크게 세 가지인데, 궁궐에

두었던 쥘내잠실, 한양 인근에 두었던 경중잠실, 각 도에 두었던 도잠실이 그것이다. 이들 잠실에는 잠모가 배치되어 양잠 기술을 가르쳤던 것이다. 잠모는 궁녀, 의녀처럼 조선시대 공적인 영역에서 일했던 여성이라 할 수 있다.

## 여성문화유산연구회의 지킴이 활동

여성문화유산연구회에서는 선잠단지에서 지킴이 활동으로 격주로 금요일에 무료해설을 하고 있다. 양잠 농가도, 길쌈하는 일도 사라진 지금 선잠단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선잠단은 종묘에 배향된 왕비들을 제외하고 여성이 국가제례의 대상이 되는 유일한 곳이다. 여성이 행사의 주체가 되는 친잠례 역시 그 의미를 새롭게 찾아야 한다. 전통사회에서 여성은 공적인 일에서 제외되었지만 길쌈의 결과물은 군포를 대신하였고, 여성의 부덕으로만 취급되었던 길쌈 노동은 우리 사회의 의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현대에 와서는 제사가 기계공업으로 바뀌기 시작해도 누에고치를 지어 공판장에서 팔아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여성들이 있었다. 화학섬유가 등장해 가내수공업적인 양잠과 길쌈이 사라지는 가운데 피복 노동자가 되었던 여성들이 있었다. 화학섬유가 대거 등장하면서 길쌈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기에 선잠단에서 전통의 계승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여성문화 유산연구회는 2004년 동아리 ‘여성문화 해설사회’로 출범한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양성 평등 입장에서 해석하고 연구하는 모임으로 매주 2,4번째 주 금요일에는 선잠단지에 관한 무료해설을 하고 있다.

## 선잠단지 위에 서서

박진하

성북로 대로를 따라 북쪽으로 나아가다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온다. 삼선교 로터리부터 시작한 큰 대로는 길게 마을버스 종점인 우정공원까지 이어진다. 또 다른 길은 선잠단지가 있는 지점에서 갈라져 길상사로 나아간다.

선잠단지라고 특별한 볼거리를 기대하고 간다면 크게 실망할 수 있다. 두 갈래 길로 나누어지는 지점에 위치한 이 사적지는 계단과 뽕나무 밭, 그리고 선잠단지라는 표지 석이 전부이다. 선잠단지는 지표면보다 높은 지단 위에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지면에서 단지까지는 계단을 이용해 출입할 수 있게 했다. 크게 계단은 상단과 하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는 6개의 계단이, 위는 5개가 있다. 마지막으로 뗏돌이 추가되어 총 12개의 계단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 단지의 높이를 이처럼 높게 만든 것은 국가에서 받드는 신위의 권위를 지키려는 의도와 계단을 올라 다가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가지게 함이다.

다 올라서면 붉은 홍살문이 앞을 가린다. 평상시에도 늘 잠겨 있어 들어 갈수 없었지만 며칠 전부터는 이 문마저도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위한 차단막까지 놓여 있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공사를 할 기미는 없이 차단막으로 외부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 너머로 뽕나무 밭과 멀리 표지석이 보인다. 홍살

문과 표지석인 설치된 제단까지는 자갈길이 만들어져 있다. 그 양쪽으로 뽕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다. 세 줄로 나란히 서 있는 뽕 나무 발이 자갈길을 중앙에 두고 양 곁에 있다.

그리곤 제단이 놓일 기단은 단지와는 다소 높게 만들어져 잔디가 심여있다. 즉 7개의 계단 위에 제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 선잠단지라는 글귀가 새긴 표지석이 놓여 있다. 대체적으로 그 분위기가 엄숙하고 지나치게 단순할 정도로 모든 화려한 장식을 배제했다. 원래 제단이란 정성을 다하여 신위를 공경하는 신령스러운 장소이다. 그러니 모든 제단이 지나칠 정도로 정돈되고 단아할 수밖에 없다. 그 중 하나가 선잠단지인 것이다.

이런 문화재는 그 단지 내의 시설물이나 장식보다는 그 주변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선잠단지가 처음 만들어질 그 당시의 풍경이나 환경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성북대로가 복개되기 전에는 큰 하천이었다. 이른바 성북 천이었던 것이다. 매우 맑고 깨끗한 하천이었다.

비극의 왕 고종이 시종 몇 명과 함께 성북동에 온 적이 있었다. 맑은 계곡을 따라 올라오던 고종은 마침내 미륵사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의 동방대학교 뒤쪽에 위치한 산사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성북 천이 범람하게 된다. 그래서 급히 수소문해서 구한 키 큰 동네 청년의 등에 업혀서 건넜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큰 하천이었다.

또한 길상사 방향으로 뻗어 오르는 시냇물 또한 맑고 깨끗하며 물이 마르는 경우가 없었다 한다. 두 개의 하천이 선잠단지 앞에서 만나 커다란 기세로 흘러가는 것이 성북 천 이었다.

종교의 나라, 인도에서는 두 개의 강이 만나는 지점을 성지로 여겨 순례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우리 선조들이 믿고 따르던 풍수지리로 설명해도 두 개의 하천이 만나는 지점은 길지이다. 다만 하천이 흘러 들어오는 것은 보여야 좋지만 빠져 나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선잠단지에서 보면 두 개의 하천이 유입되는 모양은 보이지만



시아에서 하천이 흘러 떨어지는 장면은 안 보인다. 평지보다 단지가 높아 그렇다.

1934년 발간된 경성부사에 실린 사진을 보면 당시의 선잠 단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좁다란 길과 길 양변에 식재된 미루나무로 추론되는 가로수들이 보인다. 그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창경궁에서 출발했다면 낙산 계곡을 거쳐 동소문을 지났을 것이다.

이 낙산계곡은 예로부터 수석이 좋고 꽃나무가 많았으며 특히 배꽃이 만발하여 서울의 시민과 문인들이 즐겨 찾던 명소이었다. 선잠제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누에를 키우기에 앞서 지내는 제사이었다. 그러니 봄철에 올해 누에 농사가 잘 되도록 기원하는 행사이었던 것이다.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인 것이다. 왕비를 비롯해 비빈들이 모여 누에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사실 전적으로 이들이 뽕 잎을 따

고 누에를 키우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이었을 것이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뽕 나무를 가꾸고 누에를 키우는 것이 무에 그리 중요한 일인가 싶지만 그렇지 않다. 늘 선비의 고고한 기품과 정신만을 강조할 것만 같은 유교 경전에서도 뽕나무를 키워 민생을 돌볼 것을 기술하고 있다. 즉 맹자에 그런 기술이 나온다. 집 주변에 뽕나무를 심어 누에를 키워야 한다. 그래야 소외될 수 있는 50대 이상 노인들에게 가볍고 따뜻한 비단 옷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뽕나무를 가꾸고 누에를 키우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다.

또 이런 민생을 돌 볼 의무가 임금에게 있었으니 왕을 대신하여 여성 대표로 왕비가 나서서 누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 그 해의 누에 농사가 풍요롭게 되기를 기원해야 했던 것이다. 이것이 선잠제이다.

그러니 그 시기가 본격적인 누에 농사가 시작하기 전인 음력 3월이었다. 이를 위해 궁궐을 나선 비빈들을 실은 가마행렬은 때 맞춰 피어 오른 이화 꽃이 한창인 낙산을 지나 동소문(혜화문)을 지나갔을 것이다. 성문을 빠져 나가면 복숭아꽃으로 붉게 물든 성북동의 아름다운 경치도 볼 수 있었다.

성북동은 성북 천이 흘러내리는 계곡을 중심으로 복사꽃이 만발하여 붉은 색의 구름과 안개가 가득 메운 것처럼 보인다 했다. 구중 궁궐에 간혀 지내던 왕비와 비빈들에게는 이런 것이 그야말로 최고의 나들이이었을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반 서민들에게는 이 화려한 가마 행렬이 또 하나의 구경거리이었을 것이다.

그 행로가 큰 대로가 아닌 시골 길 같은 좁은 협로이었으니 그 해방감을 더욱 컸을 것이다. 선잠단지에 도착해 보니 두 갈래 냇가 사이로 뽕나무 밭이 있고 제단이 준비되어 있었다. 주변에 인가하나 없이 조용하던 산골이 순식간에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버린다. 잠시 들떠 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례를 행하게 된다.

이런 장면을 그려 보아야 선잠단지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출입 계단을 올라 홍살문에 도달하면 큰 도로 밑으로 흐르는 성북 천을 상상으로 재현하고 길상사 방향에서 내려오는 지천도 머릿속으로 그려 보아야 한다. 저 멀리 성북초등학교 뒤편으로는 후일에 마전터가 만들어졌을 당시 생마를 말리는 장소로 활용되던 푸른 잔디도 보인다. 그리고 하천 주위에는 붉은 복사꽃이 화려하게 피어있어 눈이 부시다. 뽕나무가 도열해 있는 광경 또한 장관이다. 그 넓이가 현재보다 꽤나 넓었다 한다. 넓게 펼쳐진 뽕나무에서는 노란색 어린잎도 보이고 제법 자란 푸른색 큰 잎도 보인다. 이것이 선잠단지인 것이다.

이처럼 상상력을 동원해야만 보이는 것이 선잠단지이다. 圖

-

**박진하**는 성북동의 명소인 작은 식당 '디미방'의 주인장이며, 요가와 명상 전문가다. 우리 잡지의 편집위원으로 성북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는 진정한 성북동 사람이다.



우리 가게를 소개합니다

여행에서 만나 삶이 된 차 이야기가 흐르는,  
티차이차(TEACHAICHA)

## 이창환

2012년, 봄꽃이 지고 나뭇잎 색깔이 진해지기 시작한 초여름에 티차이차(TEACHAICHA)를 열었다. 내 삶의 초여름에게도 흥미를 잃지 않고 오래 할 수 있을 일을 선물하기로 했다. 긴 여행 속에서 길동무가 되어준 ‘차(tea)’와 함께라면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발품을 팔아 장소를 구하고, 공간을 준비하고, 아담한 공간에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빈 공간에 차가 가득 쌓이고, 가게를 열 수 있었다. 그곳에 내가 원하는 차와 이야기,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싶었다. 작고 소박하지만 내게는 소중한. 나와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함께할 안식처를 마련한다는 의미이니까!

처음 이름은 ‘J’S TEA HOUSE(제이스 티하우스)’였고, 2014년 여름 ‘TEACHAICHA(티차이차)’가 되었다. 이곳이 전 세계의 ‘온갖’ 차를 파는 곳이기 때문이다. 티(tea)와 차이(chai)와 차(cha)를 판다. 맑고 산뜻한 녹차, 조금 더 달콤하고 편안한 루이보스, 다양한 꽃과 과일이 더해진 허벌티... 내가 권하고 싶은 다양한 차를 소개하기로 했다.

\*\*\*

봄이면 화사한 꽃 화분과 함께 생기를 느낄 수 있는 차를 준비한다. 여름에는 더위를 식혀줄 냉침차가 더해진다. 가을, 겨울이면 몸에 온기를 불어 넣어 주는 차와 밀크 티를 준비한다.

차를 주문하기 전, 짧게는 2~3주, 길게는 2달 동안 시음을 반복하면서 고민에 빠진다. 계절, 품질, 개인적인 취향과 호기심을 반영한 예비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다. 계절에 어울리는, 소개하고 싶은 차를 고른다. 반복되는 시음과 예민한 감각을 유지하기 쉽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선별한 차를 풀어 담고 정리하다 보면 바닥에 떨어진 마른 찻잎과 꽃잎이 발에 밟혀 바스락 거린다. 소리가 좋다. 가게 안은 어느 꽃집보다 화려한 향기로 가득 찬다. 차와 차향이 넘쳐나는 시간이다. 선택된 차는 찻통에 담겨서 손 글씨로 이름을 적어 진열대에 올린다.

\*\*\*

가게 문을 열고나면 소파에 걸터앉아 잠시 창밖을 바라본다. 훗날리는 꽃과 푸릇푸릇한 나뭇잎의 떨림 가벼운 소음을 내며 달리는 차들과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이 조금 현실감 없어 보인다.

작은 냄비에 밀크티를 끓인다. 불을 조절 하면서, 설탕을 더해 조금 달게 끓여낸다. 가게 안이 달콤하고 따뜻한 향기로 가득 찬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짧은 휴식을 즐기는 시간이다. 대학 시절, 나는 독수리 사냥에 관심이 많아 매년 몽골오지를 찾았고 그것을 주제로 졸업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추위를 떨어내라고 몽골북부 울기의 사냥꾼들이 건네주던 말과 야크의 젖을 넣은 차가 요즘 내가 끓이는 밀

크티와 다르지 않았다.

찻집 한쪽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본다. 사진 전시를 마치고 미련이 남아서 이렇게 걸어두고 있다. 가끔은 찻집의 분위기나 계절과 안 어울릴까 걱정이지만 아직은 몽골 사진이 좋다.

\*\*\*

찻집으로 손님이 들어오고 조용히 메뉴를 살피고, 차를 묻는 짧은 대화가 오간다. 기대에 찬 눈빛을 받으며 선택을 기다리는 차들이 진열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 제각각의 색과 모양의 차 통만큼 각각의 특별한 향과 맛이 기대감을 키운다. 손 글씨로 쓴 차 라벨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차를 가리키고, 차 통을 열어 향기를 맡는다.

차를 주문하고 창가 소파에 앉으면 천천히 차를 내릴 준비를 한다. 나무로 된 바와 작업대 사이에 차를 내기 위한 다기와 준비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물이 끓어오르는 사이 차 주전자와 찻잔을 준비하고 차를 덜어낸다. 다양한 종류의 마른 과일과 꽃의 향기가 퍼지고 선택한 차의 풍미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다.

티차이차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된다.

\*\*\*

차를 공부하게 되면서, 공부하듯 혹은 약 먹듯 차를 마시기보다는 가볍게 즐기면서 차와 만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차를 즐긴다는 건, 무언가를 우려내어 마시면서 만족을 느낀다는 것이



- Menu items and prices:
- BLAND TEA (bland) 500g ,000 -
  - FRUIT TEA (fruit) 500g ,000 -
  - SLIMMED TEA (slimmed) 500g ,000 -
  - ROYAL MILK TEA (royal) 500g ,000 -
  - CHAI MILK TEA (chai) 500g ,000 -
  - DUTCH MILK TEA (dutch) 500g ,000 -
  - COOKEE MILK TEA (cookee) 500g ,000 -
  - LIMITED EDITION (limited) 500g ,000 -
  - PACKAGE SALE (package) 500g ,000 -

J'S TEA HOUSE



다. 그 내용은 복잡하고 오랜 역사와 세세하고 전문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즐겁게 마시는 것이다. 차 맛을 이야기하거나, 원하는 차를 고르기 위해서, 차의 품평을 위해서도 다양한 맛의 경험은 중요하다. 다양한 비교와 체험 없이는 차를 이야기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그렇게 지식과 자료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나 스스로도 아직은 더 즐기고 더 편안하게 느끼기를 원한다.

무엇보다 ‘차(TEA)’ 그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향과 맛을 느끼며 이야기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차를 진짜 즐기는 사람이 아닐까? 대단하고 특별한 차라고 해도 누군가가 마시고 즐길 취향의 대상이다. 스스로 즐기고, 각각의 차에 담긴 고유의 풍미와 특별함을 느끼고, 흔쾌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각자의 취향과 기분을 존중하고 함부로 다루지 않아야 한다.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일과 차를 아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 순간이라도 그런 태도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차는 그런 것이다.

여러 차를 경험하면서 배합 된 차에 관심이 많아졌다. ‘블랜드 티(BLEND TEA)’다. 복잡하고 오묘한 조합에 집중해 보면, 개별적인 향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또 다른 조화를 이루는 솜씨에 놀란다. 향과 맛, 색의 조화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차. 마른 꽃잎들, 과일 조각, 나무뿌리나 허브 잎사귀, 때로는 초콜릿과 사탕 조각들이 차잎과 섞여 있는 모습들이 마법의 연금술처럼 신비롭고 환상적이다.

요즘처럼 선선한 공기가 마을을 감싸고 반짝이는 가을의 햇볕이 가득할 때, 차 한 잔을 우려 놓고 찻집에 앉아 계절을 즐길 수 있다면 더 바랄게 없겠다.

\*\*\*

지난 4년 동안 내 생활뿐만 아니라 이 찻집과 일상에도 변화가 있었다. 성북동 찻집에는 다채로운 차들과 그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차게 되었다. 빈 구석이 많던 찻집이 지금은 좀 더 포근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변하고 있다. 차에 익숙해진 고객들도 많아졌다. 티차이차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고 했지만 아직은 시작이다. 차와 찻잔, 차주전자와 이런저런 다기들, 화분의 꽃과 나무를 가꾸고 살펴 조화롭게 만드는 일도 그를 위한 노력이다. 차를 우려내고 나면 공간을 화사하게 채우던 향기는 사라지지만, 그 순간의 기억은 가을 석양빛처럼 오감에 남아 있을 것이다.

혼자 찻집을 지키지만, 손님을 기다리는 200여 종의 차와 늘어선 다기들, 화사하게 꽃을 피운 화분들, 내게 새로운 여행을 부추기는 손님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여기는 성북동 TEACHAICHA(티차이차)다. 

-

**이장환**은 여행과 사진을 좋아하고 차 마시는 즐거움에 빠져 있다. 2005년 여름, 처음 만난 독수리 사냥에 매료되어 그 후 수차례 몽골을 드나들며 ‘독수리 사냥’을 출판했다. 현재는 성북동에 거주하며 작지만 특별한 찻집, TEACHAICHA(티차이차)를 운영하고 있다.

위치.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52-2 (성북동 170-44)

전화. 010-7126-6135 / 메일. nakidas@gmail.com

블로그. <http://mobsquard.blog.me>

성북동의 이 사람

성북동의 역사와 문화와 사람들을 품고 사는 지역 활동가,  
성북동마을자치위원장 김황용님

김현주, 오예주 정리

성북동이 서울역사문화지구로 선정되고, 근현대의 역사문화 공간들이 알려지면서 마을주민들은 동네를 잘 보존하고 가꾸기 위한 서로의 소통이 필요해졌습니다. 성북동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산지 어언 35년이 되셨다는 성북동지킴이 김황용 성북동자치위원장님을 찾아 인터뷰를 청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성북동을 잘 보존하고 가꾸고자 지역봉사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성북동 지킴이 성북동자치위원장님을 뵙고 성북동 살이와 마을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먼저, 선생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은 당연한 것인데 인터뷰를 한다고 하니 조금 민망합니다. 저는 현재 두 번째 성북동자치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내 역할을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지역봉사를 하고 있습니다.(자치위원장 임기는 2년이며, 7기와 8기 위원장직을 맡고 있음). 성북동에 둥지틀 틔운 지가 벌써 35년이 되었네요. 마을 활동을 할 때마다 지역봉사의 즐거움과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현재 집사람과 식생활 해결을 위해 조그만 밥집도 운영하고 있고요(웃음).



성북동의 보물 중 하나인 길상사가 예전에는 대원각이라는 고급요정이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이 그곳의 총지배인으로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길상사는 원래 권력자들, 대기업자들이 연회를 하던 고급음식점의 형태를 한 고급요정이었습니다. 당시 지주이던 김영한(법명 길상화)씨는 자주 나오지는 않았고, 이경자 사장이 운영을 했었죠. 1980년도부터 1997년 폐점을 할 때까지 총지배인으로 일을 했고 당시 총지배인이 나 외에 몇 명 더 있었으며, 직원이 150여명이나 되었었죠. 성북동의 사회경제활동은 대원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어요. 대원각에 물품을 대는 상거래와 직원들이 성북동에서 소비하는 돈, 그리고 인력창출 등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죠.

위원장님께서 대원각에 근무하실 때 있었던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많으실 텐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권력자들이 다녀갔습니다. 주로 정치와 연관된 일인 듯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80년대로 기억하는데, 북한의 고위급 권력자들 20여명을 초청해서 대원각에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연회가 끝날 무렵 남한 측과 북한 측 관리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강강수월래를 부르며 달빛이 비추는 마당을 몇 바퀴나 돌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대원각’이 폐업을 하면서 당시 대원각의 지주였던 김영한님이 법정스님에게 시주를 하여 1997년 ‘길상사’라는 절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는데, 지금의 길상사의 전경이 대원각 시절의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는지요?

‘길상사’는 예전의 ‘대원각’과 아름다운 풍경, 건물들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김영한님이 시인 백석과의 이루어지지 않은 러브스토리가 알려지면서 더 유명해졌고, 법정스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시던 절로도 유명해서 지금은 길상사의 근본도량인 ‘맑고 향기롭게’ 처럼 성북동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명소가 되었죠.

위원장님의 지역봉사활동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습니다. 성북동자치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성북동은 살기 편안한 동네이고 어르신이 대접받는 마을입니다. 마을이 모여 마을이 되는 성북동이 되도록 성북동자치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관리 감독합니다.

성북동은 서울에 몇 안 되는 전통과 현대가 살아 숨 쉬는 아름답고 자랑스런 마을입니다. 마을의 가치들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에 앞장서며, 성북동 자체가 역사문화유산의 보고이기에 마을을 사랑하는 지역인들의 봉사활동이 필요합니다. 북정마을의 월월축제, 삼선교의 선녀축제, 장위동의 부마축제 등 10월은 마을마다 축제가 있어 더욱 바빴죠. 성북동의 축제는 유명한 연예인을 부른 것도 아니고 보여 주기식의 축제가 아닌, 지역인들만의 소통으로 이루어진, 호화스럽지 사치스럽지 않게, 검소하고 소박하되 화려하게 하자는 의미를 부여해서 더욱 즐거웠던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웃음)

위원장님의 입장에서 성북동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많은 역사문화유산을 가진 성북동과 서로 소통하며 지내는 마을주민들이 자랑스러운 성북동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을 보존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북동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간송미술관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든 지켜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더욱 가치 있는 성북동,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내 고장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긴 시간 내어주시고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

김현주, 오예주는 본지 편집위원이다. 성북동에서 살기도 했고, 성북동을 공부하는 모임에 참가하기도 했으며, 성북동이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을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성북동 사람이다.

갤러리 17717 한장 스케치

김혜경 목욕탕 (2015. 11. 4 ~ 11. 15)



대화암반수사우나 163번 옷장으로 오세요

길천목욕탕 41번 옷장으로 오세요

표서울사우나 77번 옷장으로 오세요

표서울사우나 77번 옷장으로 오세요

오로라스파 85번 옷장으로 오세요

김소희 작업 이야기 (2015. 11. 17 ~ 12. 2)



리뷰

## ‘성북동. 시인과 만나다-네 번째’가 열린 염상섭 옛집을 다녀와서

서정혜

멋진 시인을 남편으로 둔 친구의 권유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이 가을 문화행사에 초대받았다.

성북동 주민은 아니지만 성북동을 내 집처럼 누구보다 더 자주 왕래하는 터라 그 만큼 이 행사에 관심이 많았다.

처음 가보는 성북동 골목길에 우리를 맞이한 것은 예전부터 꿈 꿔왔던 마당, 정원이 있는 아담한 주택이었다. 모양 빠진 아파트살이에 익숙했던 우리는 마치 이방인들처럼 주변을 맴돌다가 어느덧 시인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염상섭님이 과거에 이곳에서 머물렀다는 사실 하나로, 학창 시절에 배웠던 자연주의적 소설 ‘표본실의 청개구리’와 3.1 운동 직전 식민지 시대의 비참한 민족 현실을 표현한 ‘만세전’이 머리 속에 스침과 동시에 그 동안 시를 잊고 멀리했던 우리에게 시를 선물해 주는 자리임에 틀림없었다.

군데군데 비춰진 나지막한 조명과 푸르른 나무들 아래에, 초대시인 박인환님의 등장은 참으로 절묘한 조화였으며, 그 분의 시 낭송을 통해 아름다움, 슬픔, 낭만, 외로움, 그리움 등등 우리에게 왜 이러한 감정들이 필요한 건지, 시를 쓰고 느끼는 감성 그 자체가 곧 삶의 목적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삶의 일부가 곧 시인 것들, 시 자체의 분석만으로 온전하게 시를 이해할 수 있는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은 시를 지면에서만 만나다가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에서 접하게 되니 시의 장르가 다시 새로워지며 좀 더 친숙하게 다가왔다. 우리의 생각을, 감성을 표현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렇게 시에 대한 감성에 푹 빠져 있는 가운데 우리의 귀를 자극한 또 하나의 작품, 바로 가수 정밀아 씨의 기타 반주와 함께 한 노래였다. 그야말로 두 귀의 감각기관이 완전 집중되어야 들을 수 있는 율조 리는듯한 노래 소리. 우리의 잊혀져가는 감성을 파고드는 그녀의 음성은 깊어가는 늦 여름밤의 정적을 깨고 결국 시와 음악이 어울러지니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며, 이러한 자리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소리이고 나지막한 주장이었다.

계속해서, 특히 신현수님의 ‘우루무치의 사랑’을 통해 시간은 결국 침묵으로 소리 없이 흐르고 있음을, 최성수님의 ‘성북동에게’를 듣고

서는 성북동을 사랑하는 진심이 가슴에 전율로 느껴지며 염상섭님이 그 곳에 함께 계셨더라면 하는 생각과 더불어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성북동 주민이 된 듯하였다.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짜여진 그물 속에서 이제 벗어날 수도 없고, 우리네 삶은 막막해져간다. 이러다가는 하늘이 컴퓨터 화면처럼 느껴져 가상과 현실이 구별조차 안 될 것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네들의 기계같이 메마른 삶에 크나큰 위로가 되는 것은 ‘시’인 것을.

아무리 세상이 컴퓨터 화면으로 바뀌어도 시를 읽음으로서 우리의 감성을 촉촉이 적시게 되면 좀 더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때로는 無의 세계가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라고는 하지만, 글을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느껴보기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는 지금, 이제 청명한 가을은 점점 깊어만 가는데 다음에 있을 ‘시인과의 대화’가 더욱 더 궁금해진다. 

-

**서정혜**는 성북동에 이웃한 돈암동에 살고 있는 주부다. 성북동을 사랑하며, 성북동의 문화에 관심이 많고, 가끔 성북동 나들이를 통해 문화가 살아있는 동네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즐거움을 무엇보다도 아끼는 사람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성북동의 행사에 꼭 참여하는 즐거움을 자주 갖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 아름다운 성북동 가을 풍경

사진. 김선문



성북동 성곽 전망대

한양도성 순례 경로 상, 말 바위 인근에 설치된 구름다리 위 전망대에  
서는 성북동의 전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삼청각 유하정

성북천 시원지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시냇물과 삼청각 정각 '유하정'  
이 멋진 조화를 이룬다. 저녁노을에 찾아가면 더욱 아름답다.



#### 길상사 계곡

원래 있던 계곡을 그대로 유지하며 스님들의 수행 공간을 양쪽에 배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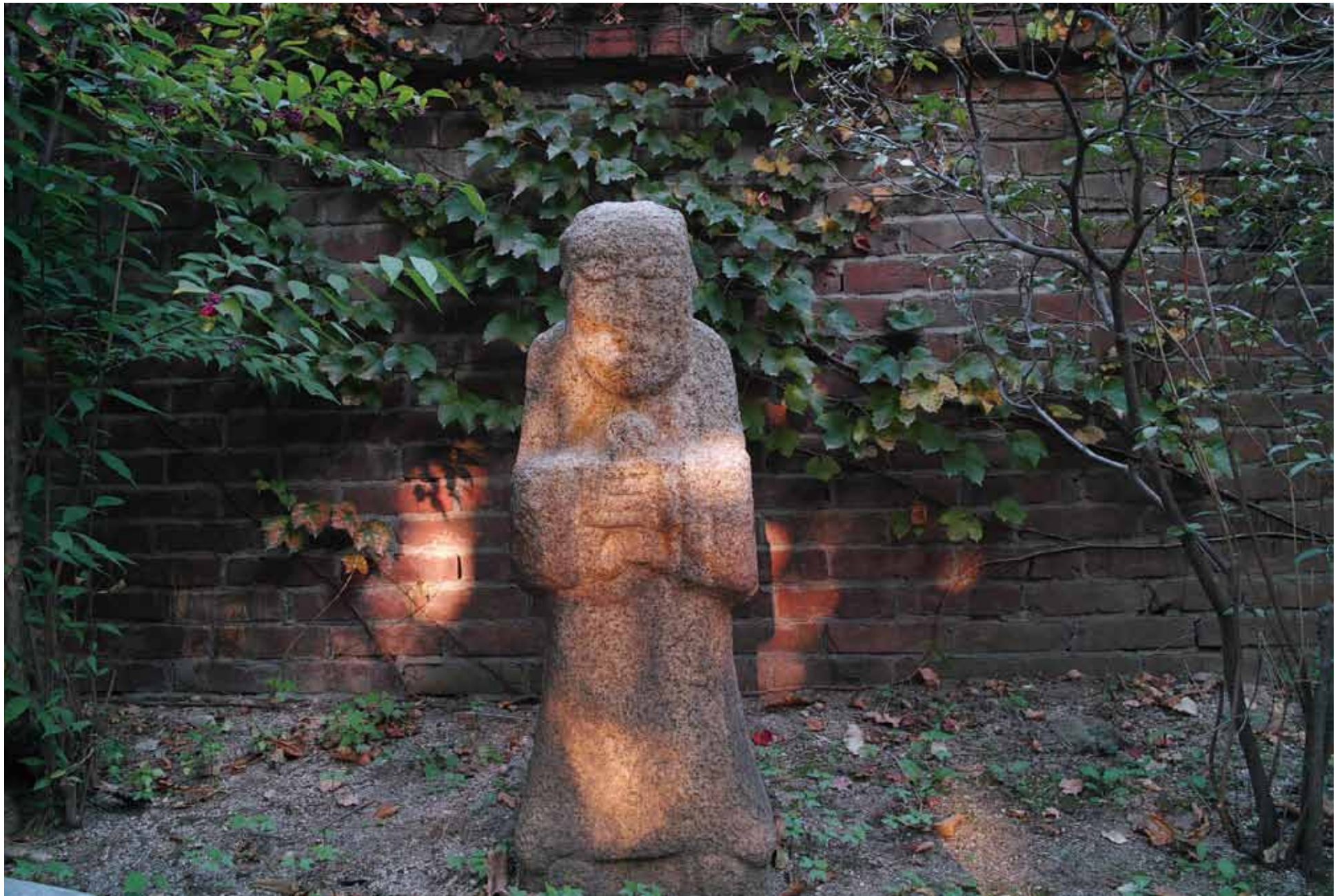
### 북정마을 산책로

도성을 담벼락 삼아 집을 짓고 살던 서민들의 고단한 삶이 새롭게 단장한 양옥에서 편히 쉬고 있다.



#### 숙정문 입구

조선 시대 내내 굳게 닫아 두었던 도성 북문, 숙정문을 이제 활짝 열어두고 있다.



최순우 옛집 뒤편길

안채와 흙담 간 공간에 여유를 두어 다닐 수 있게도 했지만 단아한  
후원의 멋진 정경을 엿볼 수 있어 좋다.



성북동 쉼터 / 서울 과학고등학교 뒤편, 한양도성이 끊어지는 지점에 쉼터가 있다. 일제 강점기에 가로수로 식재되었음직한 미루나무와 감나무, 은행나무가 정겹다.



#### 도로 중앙 가로수

감나무와 느티나무가 교대로 식재된 가로수는 특히, 비가 오는 밤이면 더욱 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한다.

## 참여 마당

이번 6호는 2015년 마지막 마을 잡지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한 해를 보내며 나눌 수 있는 덕담이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짧은 글을 모아 신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많은 분들의 귀한 글을 여기에 소개합니다.

‘가면 그것으로 끝인 선달 그믐날, 속이는 정월 초하루’라고들 하지요. 이 가을 문화의 마당, 성북 뜰을 걸으면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설계하세요.

이준식 (성균관대 박물관장)

성북동역사문화관을 건립하여

성북동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경란 (대학교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마음이 모여 마을이 된 지금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해서 변함없기를...

김황용 (성북동 자치위원장)

간송미술관이 이전 문제가 간간이 들려오는데

간송미술관이 계속해서 성북동에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이득금 (돈암동성당 수녀)

길상사가 있어 더욱 좋은 동네

배선우 (연극인)

성북동은 늘 좋은 일만 생기는 동네였으면 좋겠다.

김영한 (시인)

동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반된 모습의 마을모습이 신기하다.

제니 (영어강사)

안국동 골목처럼 성북동 뒷길도 옛 모습을 지키면서

아기자기하고 예쁜, 돌아보고 싶은 골목길로 꾸몄으면 한다.

허숙 (회사원)

성북동은 부자들만의 공간인줄 알았는데

누구나 드나드는 열린 문화공간이 많더라.

정태운 (사업가)

성북동엔 자전거길이 없다.

자전거 길을 만들면 마을 분위기도 더 좋아질 것이다.

김수현 (회사원)

성북동의 고풍스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데

인사동처럼 질서 없는 상업지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임재옥 (전업주부)

근현대의 성북동, 당시의 모습으로 재현하는 것은 어떨까?

이윤성 (차의대 과학원생)

성북동 복원사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확한 고증을 통해 이루어졌으면 한다.  
송은정 (공무원)

성북동 비둘기가 생각한다.  
이두영 (문학작가)

성북동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거리마다 상점마다  
인간미가 있고 품격이 있는 마을이다.  
인격과 품격이 있는 마을 모습 그대로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조윤주 (논술강사)

성북동 사람이 아닌 나는 들를 때마다 볼 수 있는 것만큼만, 책에서  
보던 그대로 변해가는 성북동에는 특별한 느낌이 있어 좋습니다.  
강사 박 (한국요가 성북수련원)

명륜당 코앞에서 한복집을 운영한지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작업  
중에 외롭고 허기질 때 늘 디미방에서 충전하거나 한옥 카페 회섬정  
에서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기도 하며 성북동에 뻗어나가게 드나드는,  
고향 같은 성북동입니다.  
이하림 (봉선와(縫禪瓦))

성북동이 이 상태로 주~우욱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웅기 (갤러리 대표)

놀라운 성북동! 이웃 동네와도 함께했으면 해요!  
임진규 (감성달빛대표)

10월, 시월, 'spring summer winter and fall' 팝송의 가사, 이용의 노래 중  
에도 '시월의 마지막 밤'이란 가사가 있다. 이렇게 최고의 계절은 가  
을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지절댄다. 가을이다. '天高馬肥', 마음이 살  
찐다. 가을이다.  
임태근 (과장, 법무법인 화우)

아파트와 골목길이 공존하고, 문화와 사람이 어우러진 성북. 서울의  
여느 동네들처럼 '똑 같이 똑 같이' 변하지 말고 이대로 사람냄새 나  
는 곳으로 남아있길 바랍니다. 난 성북의 이 분위기가 좋아요..  
이윤미 (성북동예비주민)

어렵듯이 어릴 적 서울의 첫 기억을 여전히 간직한 성북동,  
유년시절의 기억을 품어준 성북동에 감사하고,  
변함없이 다시 찾을 때마다 내 감성을 채워주길 기원합니다.  
장영철 (성북동골목)

성북동은 근대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이를 살아 있게 하는 스토리  
가 무궁무진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성북동의 옛 기억들에 의미를 부  
여하는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점차 메말라가는 우리들의  
감성을 되살리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북동을 위해 애  
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이진우 (성북문화재단 도서관본부장)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성북동!! 구석구석의 숨은 보석 같은 곳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성북동의 새로운  
매력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김혜영 (돈암동주민)

하루를 지내다보면, 찌든 시간 속에 문득 나를 설레게 하는 것들이 있다. 가을이 되면 더욱 발걸음하고 싶어지는 곳이 성북동!! 전철 역에서부터 천천히 걸으면 반나절을 즐기고 싶다.

전승희 (청수도서관장)

서울에서 성북동처럼 시간의 흐름(역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문화예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분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 있을까? 이 귀한 흔적들이 잘 보존되고 많이 알려지길 바랍니다.

김주영 (성북문화재단 도서관기획팀장)

축하!!! 지난 5호에서 ‘우리 가게를 소개합니다.’에서 글을 쓰신 김혜진씨가 큰 상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한(韓)디자인, 입고 싶은 우리 옷 공모전’에서 ‘우아한 나비’라는 여성스러운 원피스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한복, 청바지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공모한 150여 작품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것이기에 더욱 더 뜻 깊은 일입니다.

박진하 (편집위원)



성북동 마을 축제

## 선잠마을 가을축제에 대한 보다 짧은 보고서

노정순

2015년 10월 17일 토요일에 열린 <선잠마을 가을축제>는 지난 6월 말부터 주민들과 예술인들이 함께 시작한 인형극 워크숍을 중심으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축제 준비에 들어갔다. 주민들이 직접 만든 인형과 가면을 가지고 성북동의 이야기를 주제로 쓰여진 연극을 주민들이 직접 연기를 하였다.



그 외에도 프리마켓과 주민 시낭송, 초청무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주민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축제에 참여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만 유지된다면 일회성에 그치는 이벤트성의 축제가 아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어가면서 성북동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주민뿐 아니라 외부인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성북동의 작지만 큰 축제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볼 만한 축제였다.

이번 축제를 통해 주민간의 화합을 고취시킬 수 있었고, 성북동에 대한 각자의 자부심과 애정이 더욱 깊어졌으며, 준비과정에서의 고충들보다는 주민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성북동의 역사와 위인들, 아름다움 등을 성북동 주민들 뿐 아니라 외부인들에게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노정순은 선잠마을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선잠마을 사람들'의 총무를 담당하고 있다.

##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십니다

‘성북동천’과 함께 할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십니다

성북동 마을 공동체 ‘성북동천’은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입니다.

‘성북동천’은 마을 잡지 간행과 마을 탐방, 마을 학교 등  
마을 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지역 주민, 지역 내 생활권자, 혹은 성북동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하실 곳  
이메일. seongbukdong.town@gmail.com  
전화. 010-2366-6238 (김기민)

회비 및 후원금 입금 계좌 안내  
우리은행. 1006-901-392512 [예금주: 성북동천]

—  
**성북동천**은 성북동 주민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법인·단체, 비영리조직, 전문가 및 예술인들이 모여 설립한 컨소시엄/네트워크형 연대체로, 성북동에서 마을잡지 발간, 마을탐방 진행, 교육·문화프로그램 기획 등 마을공동체 형성과 주민간 연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성북동 주민, 17717, 스페이스오뉴월, 동네공간,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희망제작소가 함께 하고 있다.

## 편집 후기

이번 호는 시인과 화가를 소개하는 글로 시작했다. 김광섭 시인은 우리 성북동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었다. 성북동하면 ‘성북동 비둘기’를 상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 성북동에서의 그의 우정은 김환기 화가의 점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라는 대작을 그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가끔은 그런 그의 시가 대중가요가 되어 우리 곁에 머물기도 한다.

이어 우리 동네 문화 이야기로 선잠 단지를 취재했다. 여성역사 문화연구소에서 사적지의 역사적인 의미와 기록들을 보다 재미있고 짜임새 있게 해설하고 정리해 주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흥미 있는 사진을 발견했다. 일제 강점기 당시의 선잠 단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었다. 인가는 없는 좁은 신작로 옆으로 미루나무 가로수가 나란히 도열해 있고 선잠 단지는 잔디밭이 되어 있었다. 이 사진과 현재를 비교해 보니 이른바 상전벽해라는 생각이 든다. 불과 80년 전만해도 텅 빈 산골이었던 성북동이 이처럼 도심지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하다.

이외에도 아름다운 성북동의 가을 풍경을 담았다. 그리고 이번 6호는 올미년 최종호가 될 것이다. 그래서 표지를 신년 인사카드처럼 꾸며 봤다. 마을 잡지가 하나의 선물이나 신년카드로 느껴지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당분간 마을 잡지 발행과 관련된 일들은 쉬게 될 것이다.

마을 잡지가 창간된 지도 벌써 3년이나 지났다. 결혼을 해도 그렇고 무슨 일도 해도 그렇지만 3년이 되는 시점에서 권태기가 발생한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다가가던 상대방이나 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면 일상이 된다. 별로 새로운 점도 없어진다. 기대할 일도 없다. 같은 일상이 반복될 뿐이다. 그럼 싫증이 난다.

우리의 마을 잡지 만들기는 어떨까? 처음 마을잡지를 만들어 졌을 때는 뿌듯한 느낌이 자부심으로 다가 왔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혹 조금은 일상이 되어 처음에 느껴졌을 기쁨이 반감된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이와 관련해 며칠 전에 읽었던 주역의 한 문장이 생각난다. '석서(鼠)이니 정(貞)이면 려(慮)하리라'라는 구절이다. 즉 다람쥐 형국일 때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면 우려할 일이 생겨난다는 뜻이다. 늘 다람쥐 채 바퀴 돌 듯 반복되듯 느껴진다면 잠깐 쉬는 것도 좋다는 말이다. 그러나 다람쥐 형국이라는 것은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객관적인 사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늘 같아 보여도 늘 같은 일은 없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같을 수 없는 것처럼 늘 동일한 것은 없다. 우리의 느낌이 그럴 뿐이다. 내 마음을 다스리면 될 문제이다.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인가.

그렇다면 잠깐 쉬는 것도 좋다. 다음 호는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 서울시 지원도 이번 호를 끝으로 일단은 종료된다. 더 이상의 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다른 뚜렷한 대안도 없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다음 호가 나올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보다 새로운 충전을 위한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이번 호를 만들기까지 애써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진하 (편집위원)

#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마을 잡지 6호 <비매품>

2015년 11월 13일 발행

편집 | 김현주 김홍식 박진하 오예주 장영철 최성수  
디자인·사진 | 김선문 010 4441 7717  
펴낸곳 | 성북동천

성북동천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12-6 동네공간

010. 2366. 6238

